

올게 발아 현미세트 인기

장수군 '자연주의 숲' NS 홈쇼핑 완판

장수군에 소재하는 건강 기능성식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농업회사 법인 자연주의 숲이 지난 15일 TV NS 홈쇼핑에서 올게 발아 현미, 올게 발아 찰보리, 올게 발아 귀리 등을 세트상품으로 구성해 완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올게란 식량사정이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 아직 여물지 않은 곡식을 먼저 수확해서 썬 쌀을 말하며, 자연주의 숲의 올게 세트는 껍질의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물질 성분을 그대로 흡수하기 위해 껍질째로 발아시켜 가마솥 공법으로?진 후에도?도정해서 필수영양소가 그대로 고정되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이다.

이번 판매는 NS 홈쇼핑을 통하여 오후 4시 30분부터 40분간 방영했으며, 올게 상품을 현미, 찰보리, 귀리 세가지로 세트화 하여 5만9,900원에 판매하였으며, 방영 전 상품구성 및 판매 가격 등 세심한 부분까지 소비자의 욕구에 맞도록 준비한 결과 처음 홈쇼핑에 방영하였음에도 완판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자연주의 숲 관계자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홈쇼핑이라 준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자연주의 숲의 올게발아제품이 NS홈쇼핑에서 방송됩니다.

NS 홈쇼핑

방송시간: 5월 15일 오후4시35분(40분간 방송)

제품구성: 기본구성: 올게발아현미 800g x 10, 올게발아찰보리 3kg x 1, 특별구성: 올게발아귀리 800g x 1

총중량: 11.8kg 가격: 59,900원



진안군은 지난 18일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2018년 2/4분기 진안군통합방위협의회의를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진안 지역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영상 시청

진안군은 지난 18일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2018년 2/4분기 진안군통합방위협의회의를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의는 이항로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4분기 통합방위 추진상황 보고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영상 시청, 군부대 훈련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결과 보고와 2018년 을지연습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안전한국훈련 2일차에 진행된 '풍수해로 인한 대규모 터널사고' 현장훈련에 대한 영상 시청이 이어졌다.

군부대에서는 현 안보상황과 2, 3분기 군부대 훈련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항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유관기관과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관·군·경이 합심하여 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 국가지적 재난 발생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무주군 합동 전통 회혼례

지난 19일 무주읍 무주읍 최북미 술관 앞 광장(우천 시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합동 전통 회혼례 행사가 개최돼 큰 관심을 모았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전통 회혼례를 통해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정의 소중함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열린 것으로, 관내 4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결혼 60주년 이상 된 어르신 부부 9쌍이 회혼례를 올렸다.

결혼 70주년을 맞은 김재권(88),

이순덕(83) 부부는(무풍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라고 했던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나는 것 같다"라며 "역경 많았던 지난 세월을 함께 헤쳐서 고맙고 또 군민들 전체가 우리 해로를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합동 전통 회혼례 행사는 오전 10시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무주향교 박찬걸 전교가 진행하는 합동 회혼례, 단체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민요와 한국무용 공연이 축하무대로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 "무주 다목적 도서관 건립"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는 18일 무주군민에게 향학열을 불어 넣어 주고, 학습권을 부여하기 위해 무주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인홍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주는 공공도서관과 예체문화관 내 형식지공 공공도서관이 있으나 작은 규모여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인홍 예비후보는 "지역내 어린이들을 비롯해 청소년과 학부모 군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황인홍 예비후보는 영유아, 청소년, 학부모 등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건립위원회를 구성해 도서관의 기획, 설계, 시공의 모든 과정을 군민들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 '문화관광 정책' 발표

장수군수에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김창수 예비후보(전 장수농협 조합장)가 30일간의 '소통과 경청투어'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여덟 번째 테마로 '문화 관광정책'을 18일 발표했다.

김창수 후보는 "장수의 다양한 역사유적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관광분야는 장수군의 전략적 미래 영역"이라고 밝히면서,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서 장수군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군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이 동반될 수 있는 군정을 펼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창수 후보가 제시한 장수군의 문화관광정책 공약은 ▲ 장수가 문화관광벨트 구축 ▲ 장수군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 템플스테이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 승 마 레포트 산업 육성 ▲ 장수 문화예술동호인 지원 및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만드는 장수문화예술 비엔날레 ▲ 관광비우체 제도 ▲ 남덕유산·장안산·방화동 계곡 등 장수군 자연관광 자원 개발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영숙 장수군수 예비후보 "삶의 질 높이는 장수 구축"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군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수군수에 출마한 이영숙 예비후보가 장수군 5대 발전방향을 적극 설명하며 군민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영숙 예비후보는 지역현안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약한 부자농촌 건설, 문화관광·생활체육 활성화, 교육과 복지 실현에 이어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장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네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 구축으로 포괄적 안전과 재난에 대응하여 안심되는 안전도시 실현을 목표로 현장행정 해결사로 숙원사업 해결, 상품이 되는 정정장수 만들기, 실효성 있는 생활 및 재난 안전대책 시행을 실천지침으로 삼았다.



이영숙 예비후보는 "군민과 함께 현장에서 만든 속원사업과 기본이 바로 선 생활안전과 포괄적 재난안전시스템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미래의 자원이 되는 청정장수를 육성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하여 2022년까지 예산 300억원을 투입해 안전시설 설비투자, 방재집 소방안전 등 종합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안전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간담회

장수군은 18일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박스 표준 디자인 개발사업 추진관련, 주요 관계자 및 생산 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시행하는 농특산물 포장박스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은 포장재 제작의 투명성, 형평성, 제작비용의 원가 절감, 포장재 디자인의 통일성 등을 위해 과일류, 과채류 등 10여개 종류의 디자인 표준안 샘플을 제작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디자인 보완 작업과 현장 의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운영보고회 개최 후 최종 디자인 표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읍,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진안군 진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전춘성)와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맑은물사업소 직원 30여 명은 지난 18일 반월리 원반월마을을 방문해 일손 돕기에 나섰다.

진안읍과 소통행정 직원들은 이날 홀로 농사짓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고추 지주목 세우기를 도왔다.

해당 농가는 "힘이 드는 고추 지주목 식재시기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던 차에 직원들이 나와 자기 일처럼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IMSSIL CHEESE
임실엔 치즈

아직도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이십니까?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전주매일 금연캠페인